

‘해석’과 ‘사실’ 구분이 모호한 음악사

방대한 1차자료 발굴은 장점... 무리한 신조어와 의미부여는 혼란 초래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기자

814쪽에 달하는 역사책이라니 정말이지 엄청난 작업이다. 방대한 목차만 훑어보아도 넘쳐 솟아나는 저자의 학문적 열정과 에너지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그것도 1910년부터 1990년까지 담아낸 《한국근대음악사 총서》 4권 중 첫 작업이다. 한명의 학자가 평생을 다 바쳐도 도저히 업무가 나지 않은 그런 작업이다.

우선 이 책의 장점은 방대한 1차 자료에 있다. 자료발굴 미비로 블랙박스로 남아 있던 이 시기의 새로운 자료를 직접 발굴해내 이를 공개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이 책으로 후학들은 자료부족의 갈증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악보나 문헌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음악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도상학(이책에서는 화상학, Iconography)적 접근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또 한가지 대목은 지금까지 국악계나 양악계의 음악학자들이 상당부분 놓치고 있거나 등한시하여 단절된 민족음악사의 공백처럼 남아 있던 조선말기부터 한일합방까지 구한말 격동기의 음악을 파헤쳤다는 사실이다.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진 정치·사회·경제적 변동의 와중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서양음악을 수용하는 과정은 종래의 작품양식사로는 충분히 해명될 수 없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 음악양식을 특정 사회계층과 관련시키는 사회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아악에서 속악(이책에서는 민악)으로 주도권이 이행되는 과정이 패트린(조선왕조)의 몰락과 봉건제도의 타파, 서민사회의 형성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고 민족이 주체가 되는 한국음악사’ 즉 ‘인간음악사’와 ‘민족음악사’를 표방한다. 이 방대한 작업 자체도 80년대, 즉 광주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지향한다.

모든 역사는 철학을 동반한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책의 출발점은 음악의 2중구조다. 저자는 굳이 음악을 ‘음’과 ‘악’으로 구분해서 쓴다. ‘음·악’에서 ‘음’은



토대와 조건, 음향적 재료, 사실체계 전반, 음재료와 구성원칙이며 ‘악’은 선택과 질서 부여, 아이디어, 가치체계, 감정, 분위기, 상상 등의 내적인 힘, 곡을 형상화하려는 정신적 노력으로 규정한다. 음악 자체가 안고 있는 철학적,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려는 뜻은 이해되지만 이 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로 연결된 것이므로 굳이 새로운 조어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신조어 발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신통(新統)’이라는 말을 ‘새로운 전통’이라고 정의한다면 ‘전통은 언제나 새로운 요소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인가.

자료의 무차별 나열로 혼동 초래

이 책은 귀중한 1차 자료의 발굴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출처가 책의 말미에 참고문헌으로만 정리되어 있어 어디까지 저자의 주장인지 아니면 인용인지 불분명하다. 이미 국내 음악도들의 석박사논문의 참고문헌에 필수서로 등장한 저자의 위치를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배려쯤은 했어야 옳았다.

김창조 <가야금 산조>(20쪽) 같은 긴 악보는 부록으로 처리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또 그림을 곁들인 것은 좋으나 취사선택의 묘미를 살린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삽도의 선택 또한 이 책의 구도에 맞게 걸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목차의 비중과

대개 통사란 학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씌어지는 것이

옳은 순서다. 저자가 이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여건상 교과서적인

통사를 쓸 단계는 아니다. 1차

자료의 발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역사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 해석도

학계의 검증을 받아 반론까지 수용한

것이 돼야 설득력을 지닐 것 아닌가.

는 상관없이 발굴된 자료의 무차별적 나열은 독자들에게 주제를 흐리게 하는 혼동만 초래할 뿐이다.

대개 통사(通史)란 학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씌어지는 것이 옳은 순서다. 이 분야의 연구결과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저자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내의 여건상 교과서적인 통사를 쓸 단계는 아니다. 1차 자료의 발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역사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 해석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학계에서 검증을 받아 반론까지도 수용한 것이 되어야 설득력을 지닐 것이 아닌가.

물론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긴 하지만 조선말기 천민출신인 무속음악(이 책에서는 신통(神聽)예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목 등에서 저자 나름대로의 역사관이나 역사해석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음악학은 음악학 자체의 이론 수행에 있지 않고 ‘판’을 실천적으로 펼치고 기화(氣化) 체험을 획득하는 데 있다. 그러할 때, 한국의 음악학은 음악기학(音樂氣學)의 역동성을 소유한다. 이것은 음악기학이 학문의 합리적 단계를 초합리적 단계로 지양하며 더 나아가 기화의 수행에 있기 때문이다.

신통의 음·악은 곧 음악기학의 근간을 이룬다. 신통 음·악은 심신일원음악(心身一元音樂, Psychosomatic Music)이다. 바로 이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한국음악기학의

서양 파트너로 만날 수 있는 것은 현대물리학에서 비롯된 과학철학이나 앞으로 있을 음악학에서나 가능하다. 음악기학으로서 기화성은 스스로 이 땅의 자주적인 세계관과 전통음악과 새로운 전통음악, 곧 신통음악(新統音樂)을 언제나 예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민족 음악미학이고 역사철학의 근간을 이룬다”(169쪽 이하).

기존학설 무조건 뒤집는 욕심 탓

차라리 미발굴 자료를 제시하는 《근대음악사 자료집》이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선구자들이 언제나 범하기 쉬운 것은 해석의 오류다. 앞서서도 말했듯 해석과 사실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자의 해석 자체도 역사적 진실인 양 읽히기 쉽다는 것이다. 서양음악학의 방법론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개척해낸 것은 분명 평가받아야 마땅하지만, 기존의 학설을 무조건 뒤집고 보자는 욕심 때문에 신조어를 남발하고 말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역사는 여러 사람이 쓸 때보다 한 사람이 쓸 때 일관된 맥락을 읽어내기 쉬운 만큼이나 잘못을 범할 우려가 높다. 지금까지 국내 음악대학에서 음악사 교재로 사용되어온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를 높이 평가하지 않은 것은 그가 오페라사 전공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책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다. 발로 뛰는 연구, 몸으로 부딪치는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앞으로 계속 나올 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